

石牟礼道子 『苦海浄土-わが水俣病』의 기록주의

김경인*

dodokaibi@yahoo.co.kr

Contents

1. 들어가며
2. 작가의 이해와 연구의 의의
3. 『苦海浄土』가 다른 기록문학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4. 『고해정토』는 무엇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5. 나오며- 『苦海浄土』

Abstract

1954年、日本熊本県にある水俣市を中心とした不知火海に面した漁村に、原因不明の奇病が流行り、それから14年たった1968年の9月にやがて、日本政府は水俣病がチッソが不知火海に流した排水に含まれたメチル水銀による公害病であることを正式に認定した。そして1969年、石牟礼道子の『苦海浄土-わが水俣病』という小説が出版されたが、これは水俣病の事実的実体を日本だけでなく全世界にまで知らせるきっかけとなり、政府とチッソの蛮行および被害患者たちの現実を告発するなど、記録性と告発性に満ちた文学作品として注目を集めた。

本稿はそのような『苦海浄土-わが水俣病』が何を、どのように記録しているかを考察することによって、「近代資本と民衆との関係」と、それによる水俣病患者たちの苦しみや傷つけられた故郷(海)を記録した『記録主義小説』であることを見極めようとした。そのためには予め、石牟礼道子と『苦海浄土-わが水俣病』に対する基本的な理解が必要であろうと思い、先行研究と作品紹介に枚数を費やした。それから本格的な研究に入っては、「4.1チッソ会社の歴史」「4.2水俣病の真実」「4.3近代資本の弊害と水俣病以前の故郷」と、三つの観点から作品を分析し、そこから『苦海浄土-わが水俣病』が、石牟礼道子ならではの記録主義作業が産み出した小説であることを確かめてみた。また、本稿をもって、『苦海浄土-わが水俣病』をはじめ、石牟礼の文学が追究している理想郷と故郷との関係について、及ばずながらも推し測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と期待する。

Key Words : 이시무레 미치코, 미나마타병, 근대자본과 고향, 기록주의

(Ishimure Michiko, Minamata disease, Modern capital and Birthplace, History note)

* 전남대학교 일문과 박사과정. 일본근현대문학 전공.

1. 들어가며

1954년 무렵, 일본 규슈지방의 구마모토 현 미나마타 시를 중심으로 한 시라누이해(不知火海) 연안 마을들에서 사상 최초의 희귀한 괴질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원인불명의 그 괴질은 일본질소비료주식회사 미나마타공장(현재의 チッコ로 이하, ‘깃소’라 함)의 배수구가 있는 핫켄(百間)항구를 중심으로 한 근해에서 어획활동을 하며 생선을 주식으로 하던 어부와 그 가족들에게서 주로 발병하였는데, 우여곡절 끝에 깃소가 방출한 유기수은을 함유한 폐수에 의해 오염된 물고기를 다량 섭취함으로써 발병하는 중추신경계질환으로 밝혀져 1968년 9월에 공해병으로 정식 인정되었다. 발병 초기 ‘고양이춤병’이나 ‘하이칼라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였지만 원인규명에 참가한 연구자들이 발병한 지역의 이름을 붙여 ‘미나마타병(水俣病)’이라고 부르던 것이 결국 공식 병명이 되었다.

이상은 미나마타병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그 병으로 인해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과 고향까지 잃어야 했던 피해환자들의 고통과 한(恨)에 대한 기록은 쉽게 접할 수 없고, 그런 만큼 또 사람들 기억에서 잊히기 십상이다. 미나마타병이 세상에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이래 15년이 흐른 1969년, 일본인들 기억에서 차츰 미나마타병 사건이 지워지려 할 무렵 이시무레 미치코(石牟礼道子, 이하 ‘이시무레’라 함)¹⁾가 『苦海浄土-わが水俣病』²⁾라는 소설을 발표하면서 세상의 이목은 다시 미나마타병을 기억하게 된

1) 1927년 3월 11일생. 현재 구마모토 시에 기거하며 집필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1969년 『고해정토』 출간 이후, 1970년 제1회 오야 소이치(大宅壮一) 논픽션상에 선정되었지만 수상을 거부, 1973년에는 막사이사이상 수상하였다. 1930년대 초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이시무레 집안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동체생활의 원형과 오모카 할머니의 이루지 못한 사랑을 비롯해 집안내력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十六夜橋』로 1993년 무라사키 시키부 문학상과 2002년 아사히상을 수상하였다. 같은 해 新作能『시라누이』를 발표하여 도쿄를 비롯 오사카 등지에서 공연하여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2003년 『はにかみの国-石牟礼道子詩集』으로 예술선장문부과학대신상을 수상하는 등 뒤늦게나마 그의 문학은 일본문학계의 인정을 받게 된다. 2004년부터 藤原書店에서 『石牟礼道子全集 不知火』가 간행되었는데, 대표적 작품으로는 『고해정토』를 비롯해 『椿の海の記』, 『西南役伝説』, 『アニマの鳥』, 『あやとりの記』 등이 있다. 2011년에는 河出書房新社에서 편집 출간한 『世界文学全集』30卷 중 일본문학으로는 유일하게 『苦海浄土』 3부작이 포함되었다. (藤原書店의 출판사 자료를 토대로 논자 작성)

다. 이시무레는 구마모토 현 미나마타 시 출신의 작가로, 미나마타병의 역사는 물론이고 피해환자들의 고통과 한, 그리고 근대자본주의의 상징이며 미나마타병의 원흉인 ‘짓소’와의 투쟁의 역사를 『苦海浄土』 3부작³⁾에 사실적인 기록은 물론이고 고향과 피해환자들의 영혼의 소리를 서정적으로 담아낸 작가이다. 본고에서는 3부작 『苦海浄土』 중 미나마타병이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1954년 무렵부터 정부가 미나마타병을 짓소 미나마타공장의 폐수에 의한 공해병으로 공식인정하게 되는 1968년 9월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제1부 『苦海浄土-わが水俣病』(이하, 『고해정토』라 함)에 대해, 특히 그 ‘기록주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고해정토』가 1969년 처음 단행본으로 출판되었을 당시 문학평론가를 비롯한 다수의 독자들은 이 작품을 기록소설 혹은 고발성 르포르타주로 분류하였는데, 작가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문학에 정통한 연구자들은 이 소설을 이시무레의 사소설이라 주장하였고 그러한 주장은 끝내 일본문학계와 독자들의 인정을 받게 된다.⁴⁾ 하지만 논자는 그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고해정토』가 미나마타병의 역사뿐만 아니라 근대자본의 폐해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육신은 말할 것도 없고 영혼마저 잃어버린 피해환자들의 고통과 한(恨)의 역사를 기록했다⁵⁾

2) 石牟礼道子(1969) 『苦海浄土-わが水俣病』(講談社)는 김경인(2007) 『슬픈 미나마타』(달팽이)로 번역 출판되었다. 이후 본고에서의 인용은 『슬픈 미나마타』를 기준으로 하되 외래어표기법에 준하여 표기를 수정하고, 원문은 각주로 처리하며 그 출처는 2004년 7월 15일 講談社에서 간행한 문고신장판으로 하되 해당 페이지만을 표기(<pp. >)한다.

3) 참고로 2부와 3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 이시무레는 1970년 9월부터 『고해정토』 2부에 해당하는 『神々の村(신들의 마을)』을 집필하기 시작한다. 2부에서는 1968년 이후 죽음과 더불어 사는 피해환자들의 한(限) 서린 삶의 편린들을 그리면서 그들이 불구의 몸을 이끌고 미나마타병 순례를 떠나는 모습, 또 미나마타병은 두말할 것 없고 회사와 정부 그리고 차별의 시선들을 상대로 하는 처절한 몸부림을 슬프도록 아름답게 전해주는 ‘한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2부는 19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의 영혼과 함께 신음하다 1989년에야 완성되어 출판에 이르게 된다. 마지막 3부 『天の魚(하늘의 물고기)』는 1970년 이후부터 1973년 3월 20일 미나마타병 1차 소송이 승소로 끝나기까지의 투쟁의 모습(특히 오사카와 도쿄에서 펼치는 짓소 본사와의 길고 긴 싸움)을 현장에 늘 함께 했던 이시무레가 생생하게 기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환자를 비롯해 미나마타병 환자들을 지원하는 모든 민중이 하나가 되어 여어내는 애환과 미나마타병 투쟁의 역사를 그려내고 있다. 이 3부는 예외적으로 2부보다 훨씬 이른 1974년 10월에 출판되었다.

4) 石牟礼道子(1969), 앞의 책, 『解説・石牟礼道子の世界』(渡辺京二), pp.364~386 참조.

5) 宮本久雄(2008)가 『고해정토』에서 ‘한’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하는데, 논자 역시 그의 작품들에 묘사된 기층민들의 슬픔과 설움 및 삭임 등을 ‘한’이라는 정서로 본다. 그의 작품들을 통

는 의미에서 기존의 기록소설론과는 다른 기록소설, 즉 이시무레 본인의 표현처럼⁶⁾ ‘기록주의 소설’임을 조명하고자 한다.

2. 작가의 이해와 연구의 의의

이시무레의 문학세계와 『고해정토』에 대한 연구와 평가는 일본 내에서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에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고 선행연구 역시 미비하므로, 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본의 몇몇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상가이자 평론가인 와타나베 교지(渡辺京二, 2004)는 『石牟礼道子の世界-『苦海浄土』を讀む』⁷⁾에서 그의 작품들이 전근대적이고 비과학적인 영혼의 세계이며 주술적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와타나베는 출판 초기에 ‘기록소설’로 분류되었던 『고해정토』를 이시무레의 ‘불행한 의식’이 낳은 ‘私小説’이라고 주장한 대표적 인물이기도 하다.⁸⁾ 또 이와오카 나카마사(岩岡中正, 2008)는 『이시무레 미치코의 문학과 정치』⁹⁾에서 개인중심주의와 그 구체 그리고 계몽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근대문학과 정치에 대비되는 이시무레의 문학을 ‘탈근대의 문학’이라고 정의하며, 이시무레 문학의 주체가 ‘私’가 아닌 ‘우리(私たち)=공동체’이기 때문에 그의 문학을 또한 ‘공동성 및 공동구제의 문학’이라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 미야모토 히사오(宮本久雄, 2008)는 『Possibility of "Han(恨)" in Ishimure's Literature』¹⁰⁾에서 이시무레의 문학에서 한(恨)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면서, 특히 『고해정토』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恨과 그 극복을 이시무레가 애니마의 매개자인 샤먼이 되어 작품 속에 담아내고 있다고 말한다.

해 비롯된 생각이지만 일본 기층민들의 정서에도 ‘한’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은 차후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6) 각주11을 참조할 것.

7) 渡辺京二(2004) 『不知火-石牟礼道子のコスモロジー』, 藤原書店, pp.148~160.

8) 石牟礼道子(1969), 앞의 책, 『解説-石牟礼道子の世界』, pp.367~368 참조.

9) 岩岡中正(2007) 『石牟礼道子における文学と政治』, 『熊本法学』 게재, 九州法学会.

10) 宮本久雄(2008) 『Possibility of "Han(恨)" in Ishimure's Literature』,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이시무레의 작품세계와 『고해정토』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좋은 자료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본고에서는 그러한 이해를 토대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분석과 고찰을 통해 『고해정토』가 어떠한 기록주의 소설인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출판 당시 심지어 논픽션으로까지 분류되었던 『고해정토』가 작가와 일부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작가의 ‘사소설’로 인정받게 된 것을 무엇보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지금 새삼 그의 ‘기록주의’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고해정토』가 기록하고 있는, 즉 기록의 객체를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 ‘기록주의’라는 말은 이시무레 자신이 정의한 말이기도 하는데, 그는 『고해정토』의 작가후기에 아래와 같은 글을 쓰고 있다.

의식의 고향이 됐든 실제의 고향이 됐든, 오늘날 이 나라 기민정책(棄民政策)의 각인을 받아 잠재적으로 폐기처분 되어있는 부분이 없는 도시며 농어촌이 어디 있을까? 이와 같은 의식의 부정적인 면을 풍토의 물속에 처박으면서, 마음에서 고향을 지워야만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 고향이란 이미 행방을 감춰버린 안타까운 미래다. 지방으로 떠나가는 사람과 고향에 있으면서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과의 같은 거리에 몸을 둘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향을 다시 한 번 매개체로 삼아 민중의 마음과 함께 어렵פות한 추상세계인 미래를 공유할 수 있을 것만 같다. 그 밑도 속에 그들의 노래가 있고, 우리의 시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작업을 기록주의라 부르기로 한다……11)

밑줄 친 ‘우리는 고향을 다시 한 번 매개체로 삼아 민중의 마음과 함께 어렵פות한 추상세계인 미래를 공유할 수 있을 것만 같다’에 바로 이시무레가 지향하는 이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마음에서 지워진 고향’은 근대 자본주의가 초래한 결과이면서 안타깝지만 행방을 감춰버린 우리의 미래라고 그는

11) 意識の故郷であれ、実在の故郷であれ、今日この国の棄民製作の刻印をうけて潜在スクラップしている部分を持たない都市、農漁村があるであろうか。このような意識のネガを風土の水に漬けながら、心情の出郷を遂げざるを得なかった者たちにとって、故郷とはもはやあの、出奔した切ない未来である。地方に出てゆく者と居ながらにして出郷を遂げざるを得ないものとの等距離に身を置きあうことができれば、わたくしたちは故郷を再び媒体にして民衆の心情とともに、おぼろげな抽象世界である未来を、共有できそうにおもう。その密度の中に彼らの唄があり、私たちの詩もあろうというものだ。そこで私たちの作業を記録主義とよぶことにする…… <pp.359~360>, 밑줄은 논자. 이하 동일.

말하고 있다. 『고해정토』를 비롯한 그의 작품들을 보면 그와 그의 민중이 지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고향’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는 그런 의미에서 이시무레가 어떠한 ‘기록주의’ 작업을 통해 행방불명된 ‘고향과 미래’를 공유하고자 했는가, 『고해정토』에 나타난 그의 ‘기록주의 작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록하고자 했는가를 고찰할 것이다. 또한 『고해정토』를 비롯한 이시무레의 문학이 추구하는 이상향과 고향의 관계에 대해 미흡하나마 유추해볼 단서를 찾아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3. 『苦海浄土』가 다른 기록문학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969년 『고해정토』가 처음 출판되었을 때, 일본의 평론가들과 독자들은 이 작품을 르포르타주나 고발성 기록문학 정도로 보는 경향이 강했는데, 1970년 일본의 대표적 논픽션상인 오야 소이치(大宅壯一) 논픽션상 제1회 수상작으로 선정된 것만 보더라도 당시 이 작품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일본 문학계는 이 작품의 문학성을 인정하고 작가의 사소설이라는 주장이 일반화되었다.

하지만 그의 문학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해정토』의 기록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기록문학’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사실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기록적 성격이 강한 문학’을 뜻하므로, 당연히 픽션 즉 허구와 창작을 용인하지 않는 문학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고해정토』는 지극히 사실적인 자료들을 인용해가며 국가와 기업이 은폐하고자 애썼던 ‘미나마타병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엄연한 기록문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시무레가 말하는 ‘기록주의’는 결코 사실의 객관적 기록이 아니다. 때로는 노래와 시, 때로는 소설로 불리고 쓰이지만 그가 기록하고자 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고향으로 대표되는 민초들의 영혼이고 그들이 꿈꾸는 이상향이다. 즉 같은 기록문학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피상(皮相)을 바라보며 그를 통

해 느끼는 것은 보는 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표현하는 이에 따라 서사(敍事, narratives)¹²⁾하는 바 역시 저마다 다르다.

미나마타병이라는 피상을 어떤 형식으로든 작품화 한 예술가들은 많다. 예컨대 『고해정토』에도 등장하는 사진작가 구와바라 시세이(桑原史成)¹³⁾, 짓소와 환자들 간의 위로금계약이 조인된 1959년 이후의 미나마타병 공백기에도 미나마타병과 함께한 이시무레의 『고해정토』가 미나마타병 역사를 만들었다고 주장한 기록영화감독인 쓰치모토 노리아키(土本典昭)¹⁴⁾, 미나마타병이 창궐한 미나마타 시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살인사건을 추적하는 미스터리지만 미나마타병 사건을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회성 미스터리 소설 『海の牙(바다의 엄니)』를 쓴 미즈카미 쓰토무(水上勉)¹⁵⁾ 등이 그들이다. 『海の牙』는 말할 것도 없이 픽션이지만, 소설의 시대적 내지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된 미나마타병이 창궐한 미나마타 시 일대에 대한 서술은 모두 진실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구와바라나 쓰치모토의 사진과 다큐멘터리 영화는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피사체를 사진과 영상에 담은 것이니만큼 그 어떤 허구도 조작도 개입될 수 없다. 그야말로 보여지는 그대로를 사진에 담고 흐르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피해환자들의 현실을 화면에 담아낸 기록적 작품이지만, 그것을 통해 그들이 무엇을 서

12) 서사(敍事)는 일차적인 의미로 ‘사건의 서술’을 의미하는데, 그 사건의 서술에 작가 나름의 허구적 요소가 가미된 서사물은 ‘서사문학’과 등가의 개념을 갖는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고해정토』를 ‘서사문학’이라 볼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이시무레의 ‘기록주의 작업’에 의한 『고해정토』가 무엇을 서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자 한다. 참고로 서사에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요건은 사건이라는 내용(story)과 이야기하는 화자의 기술(narration)이라는 행위인데, 여기에서의 서사는 내용과는 별개로 화자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의도와 방법으로 그 내용을 서술하는가 하는 행위측면을 가리킨다. 한용환(2001), 『소설학 사전』, 문예출판사, pp.237~240 참조.

13) 구와바라 시세이(桑原史成, 1936~), 일본의 보도사진가. 1960년 도쿄농업대학과 도쿄종합사진전문학교를 졸업한 이후 미나마타를 비롯해 한국, 베트남, 러시아 등을 취재하면 찍은 사진들을 전시와 책으로 출판하였다. 특히 『미나마타병』(1962)이라는 개인전으로 일본사진평가협회 신인상을, 『한국』(1965)으로 講談社 사진상과 일본사진협회상을 수상한 바 있다.

14) 쓰치모토 노리아키(土本典昭, 1928~2008), 기록영화감독. 미나마타병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잘 알려진 감독으로 대표작으로는 『水俣一患者さんとその世界』 『不知火海(しらぬいかい)』 등이 있다.

15) 미즈카미 쓰토무(水上勉, 1919~2004), 소설가. 폭넓은 취재와 약자에 대한 온정과 관심으로 다수의 작품을 집필한 쇼와시대를 대표하는 인기작가. 『雁(がん)の寺』로 나오키상 수상. 그 외에 『飢餓海峡』 『五番町夕霧楼』 『一休』 『海の牙』 등이 있다. 『海の牙』로 일본추리작가협회상을 수상하였다.

사하고자 했던 거기에는 제3자인 관찰자로서의 시선과 감동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독자 혹은 관객 역시 그들이 서사하고자 했던 관점을 중심으로 작품과 현실을 동일시하여 객관적 시각으로 보고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고해정토』는 어떠한가? 이시무레가 사실적 자료들을 인용하고 실재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있지만, 결코 단순한 기록문학은 아니다. 거기에는 서정적이며 허구적인 기록의 기술이 숨어있다. 예컨대 실재인물을 모델로 한 등장인물들의 기구한 삶을 미나마타병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옴니버스 식으로 소설화하고 있다거나, 주인공들의 대사가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닌 이시무레가 그들의 영혼과의 교감을 통해 창작해낸 대사라는 점 등이 특히 그렇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글로 옮기면, 그렇게 되는 걸요.”

그 말에 『고해정토』의 방법적 비밀이 모두 드러나 있었다. 아무리 그렇다지만 이 얼마나 강렬한 자신감인가?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바, 나는 『고해정토』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꾸며진 공상적인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이 얼마나 방대한 사실의 세부사항에 입각해서 쓰인 작품인가는 일단 한번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다만 나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처럼, 환자들이 실제로 들려준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문장수식이며 악센트를 부여하여 문장화한다는, 이른바 취재기록의 방법으로 쓰인 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두고 싶을 뿐이다. 이 책의 발간 직후, 그녀는 “모두들 내 책을 취재기록이라고 생각하죠.”라며 웃었는데, 그때 나는 그녀의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환자가 말로 표현하지 않은 생각을 글로 표현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자신감이다. 이시무레 미치코 무녀설 등은 이런 까닭에서 나왔는지도 모른다.¹⁶⁾

위의 인용문은 『고해정토』의 작품해설에 쓴 와타나베 교지(渡辺京二)의 말로, 『고해정토』가 고발성 취재기록으로 치부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기술하며 『고해정토』 집필방법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다. 와타나베의 서술처럼 『고해정

16) 石牟礼道子(1969) 앞의 책, 해설(渡辺京二) 『石牟礼道子の世界』, p.371.

토』는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토대로 쓴 작품이지만 동시에 피해환자들의 삶과 영혼의 세계를 자신의 삶과 영혼(와타나베는 이를 ‘이시무레의 불행한 의식’이라고 표현한다)을 토대로 배양된 교감의 언어로 창작한 작가의 ‘사소설’임을 부정할 수 없다. 논자는 이것을 눈앞에 보이는 피상을 보이는 그대로 기록한 사진과 영화와는 달리 『고해정토』만이 갖는 기록주의 작품으로서의 크나큰 차이라고 생각한다. 즉 하나의 피상=미나마타병을 소설로 기록함으로써 이시무레가 서사하고자 했던 것은, 구와바라나 쓰치모토처럼 미나마타병과 피해환자들의 양상을 고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 미나마타병으로 인해 잃어버린 고향과 피해어민들의 영혼의 소리를 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고해정토』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4. 『고해정토』는 무엇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4.1 짓소(チッソ)회사의 역사

짓소(チッソ)는 미나마타를 발상지로 1908년 일본카바이드상회를 세우고 미나마타공장을 설립하였다. 1909년에는 카바이드를 원료로 하여 공기 중의 질소를 흡수 화합시켜 질소비료를 만드는 석회질소의 특허를 독일에서 사들여 본격적인 전기화학공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 후 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최고의 화학공업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짓소 미나마타공장이었다¹⁷⁾. 『고해정토』는 메틸수은을 함유한 폐수를 바다로 흘려보낸 미나마타병의 원흉인 ‘짓소’의 역사를 ‘근대 자본과 지역 민중들의 삶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

짓소는 당시 미나마타 시에게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까지 군림하던 절대적 존재로 마치 군주와도 같았다. 1950년대 당시 5만의 인구 중 짓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3,500명, 그 가족까지 합하면 1만5천 명으로 미나마타 시 인

17) 原田正純(1972) 저, 김양호 역(2006) 『끝나지 않은 아픔 미나마타병』, 한울, pp.32~33 참조

구의 약3분의 1에 해당했고, 세금의 45%를 미나마타공장이 내고 있던 실정이라 시(市)행정 역시 짓소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었다.¹⁸⁾ 그러한 짓소는 미나마타를 발상지로 1908년 일본카바이드상회를 세우고 미나마타공장을 설립하였다. 그렇다면 이 짓소와 미나마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水俣市史』의 기술을 통해 알아보자.

1906년 1월, 가고시마 현 이사 군 오쿠치 마을에 曾木電氣株式會社가 자본금 20만 엔으로 창립되었고, 이것이 日窒工場(현, 짓소미나마타공장) 탄생의 첫걸음이 되었다. (중략)

노구치 준(野口遵)은 최초 가고시마 현 고메노쓰에 카바이드공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준비 중이었는데, 이를 전해들은 미나마타의 마에다 나가요시(前田永喜)는 마을 유지들과 뜻을 모아 유치작업에 착수하였다.(중략)결국에는 공장부지를 싼 값에 제공할 것, 고메노쓰와의 거리차인 8킬로에 대해서는 그 거리만큼의 전주를 기부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미나마타에는 우메고항 등 좋은 항구가 있음을 역설하는 등 필사적인 유치운동을 계속한 결과, 노구치도 그 열의에 감동하여 미나마타에 공장을 건설할 것을 결심, 마에다의 자택을 사무실로 하여 1906년 소기발전소가 완성, 1908년 5월에는 당시의 미나마타강 하구인 古賀에 카바이드공장이 설립되었다.¹⁹⁾

이상의 역사적 경위를 거쳐 짓소는 미나마타에 뿌리를 내렸고 긴 세월동안 미나마타의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와 시민의 생활과 의식까지를 점령해오다, 결국에는 미나마타를 비롯한 시라누이해 연안의 민초들 목숨까지를 잠식하기에 이른다.

18) 石牟礼道子(2004) 『石牟礼道子全集 第一卷』, 『水俣病』, p.150 참조.

19) 明治三十九年(1906年)1月、鹿児島県伊佐郡大口村に曾木電氣株式會社が資本金20万円で創立され、これが日窒工場誕生の第一歩となったものである。(中略)野口遵は最初鹿児島県米の津にカーバイド工場を建設するけいかく出準備を進めていたが、これを伝え聞いた水俣の前田永吉は町の有志と計りこれが誘致に乗り出した。(中略)遂には工場敷地を安く提供すること、米の津との距離の差二里に対してはその間の電柱を寄付することを約束すると共に、水俣には梅戸港などの良港を持つことを力説、必死の運動が続けられた結果、野口もその熱意に心を動かし、水俣に教条建設を決意、前田の自宅を事務所として明治39年曾木発電所が完成、同四十一年5月、当時の水俣川河口古賀にカーバイド工場が建設されたものである。(宇井純(1968), 『公害の政治学-水俣病を追って』, 三省堂, pp.13~14재인용).

한때 미나마타는 염전으로 성행하던 지방이었는데 메이지 말기에 소금의 전매법이 시행됨으로써 염전이 차츰 모습을 감추게 되어 지방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던 미나마타에 소기전기와 카바이드상회의 유치는 절대적 염원이자 가난의 탈출구였다. 그런데 50년도 채 지나지 않아 미나마타는 그 ‘절대적 염원과 가난의 탈출구’로 인해 나락의 길로 떨어지고 마는 역사적 모순에 부딪히게 된다.

참고로 짓소는 1927년 식민지였던 조선에도 지사인 조선질소비료 주식회사와 홍남비료공장을 설립하였는데, 『고해정토』에도 그에 대한 내용이 묘사되고 있어 잠깐 살펴보기로 하자.

조선질소비료 주식회사, 1927년 5월 2일 자본금 1천만 엔을 가지고 조선 함경남도 함흥군 운전면 호남리 1번지에 설립. 다이쇼 15년(1926년) 말에 촬영한 호남리의 망망하고 둥글게 모여 있는 어촌집단. 이곳에는 어떤 생활과 일상과, 그리고 마을들이 존재했을까? (중략)

조선 함경남도 함흥군 운전면 호남리라는 바닷가 마을이 소실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무수한 호남리 마을이 조선에서 사라지고, 그곳에 살았던 주민들의 민족적 저주가 죽음으로 바뀌고, 차마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경우를 나는 수없이 많이 알고 있다. 이 나라의 탄광이나 강제수용소나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등에서. 이 열도의 뻗속 깊이 서린 고통 속에. 그런 고통은 또 앞으로 찾아올 나의 세월 속에 있다.

나의 고향 바닷가에서, 나는 그저 손가락을 꼬아가며 헤아리고 있다. 하나, 둘, 세 명, 네 명 죽었다 다섯 명 죽었다 여섯 명 죽었다, 마흔두 명 죽었다…….²⁰⁾

이상의 인용문을 통해 우리는 일본의 독점자본이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20) 朝鮮窒素肥料株式会社、昭和二年五月二日資本金一千万円をもって朝鮮咸鏡南道咸興郡雲田面 湖南里一番地に設立。大正十五年末に撮影された湖南里の渺々とまろやかな漁村集落。ここにはどのような生活と日常と、そして村とがあつたのであろうか。(中略) 朝鮮咸鏡南道咸興郡雲田面湖南里、という海辺の部落が消失したことはたしかである。数々の湖南里の里が朝鮮でうしなわれ、そこにいた人びとの民族的呪詛が死に替わり死に替わりして生き続けていることをわたくしは数多く知っている。この国の炭坑や、強制収容所やヒロシマやナガサキなどで。この列島の骨の、結節点の病いの中に。そのような病いはまた、生まれてくるわたくしの年月の中にある。自分の海辺にいて、わたくしはただ、指を折って数えているのだ。ひとり、ふたり、さんにん、よにん、四人死んだ五人死んだ六人死んだ、四十二人死んだとくpp.295～298>.

국토와 민중의 삶까지를 어떻게 착취하고 유린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시무레가 국경을 초월한 민중의 삶과 영혼의 세계를 먼저 살피고 기록하는 민중의 작가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이시무레는 2003년 『はにかみの国-石牟礼道子詩集』으로 예술선장문부과학대신상을 수상하였는데, 시집과 같은 제목의 시(詩) 『はにかみの国-死ににゆく朝の詩』는 1945년 8월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딸자식을 잃고 넋을 놓아버린 한 어미를 비롯한 조선인 피폭자들의 피 끓는 한을 담은 노래이다. 이는 이시무레가 1968년에 나가사키의 조선인 피폭자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면서 그들이 처한 초현실적인 비극과 갈기갈기 찢긴 영혼의 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같은 민족조차도 챙기지 못했던 조선피폭자들에 대해²¹⁾, 이시무레는 ‘부끄러움의 나라’ 일본의 행방불명된 영혼²²⁾을 대신해 영원한 약자일수밖에 없는 민초들(조선인피폭자) 편에 서서 그들의 한(恨)의 역사를 대신 기록해주고 있다. 이 역시 이시무레 자신이 말하는 ‘기록주의 작업’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이시무레의 집필에 대해 김종철(2010)²³⁾은 민중의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은 구술을 통한 역사에 그치고 그마저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마는데, 이시무레와 같은 작가가 있음으로 해서 일반적인 근현대문학에서는 잊혀지고 마는 ‘민초들의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역사’가 현재까지 기억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민중의 역사를 살필 자료가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시무레처럼 ‘밑바닥 민중의 삶과 내면을 이렇게 리얼하게 그릴 수 있는’ 작가는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자료의 중요성 역시 강조하고 있다.

어쨌든 그렇게 미나마타에 뿌리를 내린 짓소가 미나마타뿐 아니라 구마모토

21) 당시, 나가사키의 조코인(誠孝院)이라는 곳에 154주의 조선인피폭희생자의 유골이 방치되어 있었지만, 신분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한일 정부는 그들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미쓰비시 산업에 징역당해 갔던 조선인들은 감금당하다시피 한곳에 몰려있었던 관계로 원폭투하로 폐죽음을 당했지만, 피폭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두 명의 증인을 데려오라는 일본정부의 비정한 조치로 조선인은 피폭자로서 그 어떤 치료도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었다. 이상은 『石牟礼道子全集 第一卷』에 수록된 『菊とナガサキ』(pp.336~350)라는 에세이를 참조.

22) 『はにかみの国-死ににゆく朝の詩』의 마지막 연 첫 행인 ‘こころづけば はにかみの国の魂は去り’ 인용.

23) 김종철(1947~), 전(前)영남대 영문과 교수, 격월간『녹색평론』 편집인이자 녹색평론사 대표, 이하는 『녹색평론』(2010) 114호, 『대지(大地)로 회귀하는 문학』, p.14 참조.

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짓소가 있기 이전의 미나마타가 어떤 고장이었는지를 『고해정토』에 실린 아래 두 곡의 노래는 잘 보여주고 있다.

오늬모양 산의 하늘 색 달빛 해변의 파도소리
 맑고 맑은 미나마타의 우리는 가지 않는 사람의 길
 연기 시대에 세상에 알려져 쇼와시대에 이름을 높이고
 맑고 맑은 미나마타의 —미나마타 제1초등학교 교가
 (중략)
 야시로 산에 비치는 빛 시라누이해로 비쳐오면
공장의 지붕은 빛나고 연기 자욱한 마을의 하늘
우리 이름은 정예 미나마타공장

이라고 노래하면서 걷던, 일본질소 미나마타공장의 노래(나카무리 야스지 작사, 고가 마사오 작곡)에서 어린 마음의 기억에도 웬지 청청하고 상쾌한 신흥의 기분이 ‘연기 자욱한 마을의 하늘’이라는 가사에서 느껴졌었다.²⁴⁾

위의 두 노래가사만 보더라도 짓소 미나마타공장이 설립되기 전과 후의 상대적인 모습을 여실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린 이시무레의 기억에 ‘연기 자욱한 마을의 하늘’이라는 노랫말과 함께 새겨진 ‘상쾌한 신흥의 기분’은 그야말로, 머지않은 미래에 근대산업자본의 대표주자인 짓소가 미나마타에 가져다줄 재앙에 대한 역설적인 ‘복선’이 아닐 수 없었다. 즉 이시무레는 짓소의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근대자본이 고향에 미치는 부정적인 관계를 서사하고 있는 것이다.

4.2 미나마타병의 진실

미나마타병이란 어패류에 축적된 유기수은을 대량으로 섭취함으로써 발생하

24) 矢筈の山の空の色/ 月の浦わの波の音/ 清くさやけき水俣の/ 吾らは行かん人の道/ 延喜の御代に世に知られ/ 昭和の御代に名を高き/ 清くさやけき水俣の— (水俣第一小学校校歌)(中略) 日室水俣工場歌(中村安次作詞, 古賀政男作曲)、矢城の山にさす光り/ 不知火海にうつろえば/ 工場のいらかいやはえて/ 煙はこもる町の空/ わが名は精鋭水俣工場という歌の、幼な心の記憶にさえ、何か晴々とさわやかな新興の気分が、煙はこもる町の空、という歌詞のあたりにあったのである<pp.115~116>.

는 질환으로, 미나마타공장에서 방출한 폐수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유기수은에 중독된 공해병이다.

이러한 미나마타병이 세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54년으로, 그 무렵부터 다수의 환자들이 ‘원인불명의 중추신경질환’을 호소하며 잇소 부속병원을 찾게 된다. 하지만 회사와 정부는 당시 부속병원원장이었던 호소카와 하지메²⁵⁾ 박사의 보고를 무시하고 병의 실태와 원인 등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였고, 병은 하루가 다르게 민중들의 삶과 목숨을 앗아갔다. 미나마타병이 공해병으로 정식인정을 받게 된 것은 1968년 9월로 최초 환자발생 이래 15년만의 일이었다. 『고해정토』는 그 15년 동안 은폐되어온 미나마타병의 원인규명 경위와 병의 양상들을 수많은 사실자료들을 인용하면서, 피해환자들의 병상과 그 가족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회사와 정부의 철면피한 무책임과 사회의 냉대와 차별에 이르기까지를 지극히 서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아래 표는 호소카와 하지메 박사가 후생성에 제출했던 보고서에 첨부한 <附表2-환자일람표>이다. 이 표는 보고서 제출 당시 조사된 환자들의 개인자료를 정리한 것인데, 여기에 이 표를 게재하는 것은 『고해정토』에 등장하는 환자들이 실제인물임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25) 細川一(1901~1970), 愛媛県 출생. 1927년 도쿄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1936년 잇소주식회사에 입사. 41년 잇소 부속병원 원장에 취임. 1956년 5월 미나마타병을 발견하고 미나마타 보건소에 보고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1956년 8월 후생성에 제출하였음. 미나마타병이 잇소 미나마타공장의 폐수에 의한 것임을 고양이 실험을 통해 밝혀내지만, 회사 측의 명령으로 공표하지 못한 채 62년 잇소를 그만 둠. 1970년 폐암으로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변호사단 입회하에 미나마타병 피해환자 측 증인으로 잇소의 폐수와 미나마타병 관계에 대한 증언을 함.

〈부표2-환자일람표〉²⁶⁾

번호	연령	성별	직업	주소	발병일/사망일	상호관계
1	2	♂	회사원	まてがた	1954.5/54.10.21	6, 7의 옆집
2	42	♂	회사원	百間	54.5.25/	
3	48	♂	농업	多々良	54.6.14/54.8.5	
4	23	♂	회사원	明神岬	54.7.17/55.2.9	10의 이웃
5	10	♂	어업	月の浦	54.8/55.6	14의 동거친척
6	3	♀	석공	まてがた	54.8.12/54.10.3	1, 7의 옆집
7	43	♂	석공	まてがた	54.8.19/54.10.9	1, 6의 옆집
8	15	♀	어업	湯堂	54.8.20/	
9	8	♂	어업	湯堂	55.5/	34의 남동생
10	37	♂	사원	明神岬	55.6.17/	4의 이웃
11	2	♂	목공	月の浦	55.7.19	27의 옆집, 12의 친척
12	42	♀	농업	出月	55.8.1/55.11.21	11의 친척
13	51	♂	어업	梅戸	55.10	20의 이웃
14	33	♂	어업	月の浦	55.12/56.4.9	5의 동거친척
15	2	♂	어업	湯堂	56.1/56.7.19	9, 34, 29의 친척
16	51	♂	화공	百間	56.4.1/	
17	5	♀	어업	月の浦	56.4.14/	18의 언니
18	2	♀	어업	月の浦	56.4.24/	17의 여동생
19	19	♀	농업	月の浦	56.4.25/	5, 14의 친척
20	49	♂	어업	梅戸	56.4.25/56.7.19	13의 이웃
21	5	♀	어업	月の浦	56.4.28/56.5.23	25의 딸
22	41	♀	어업	出月	56.5.8/	26의 친척
23	11	♂	어업	月の浦	56.5.8/	25의 아들
24	17	♀	농업	湯堂	56.5.13/	
25	43	♀	어업	月の浦	56.5.26/	23, 21, 28의 엄마
26	?	♂	어업	出月	/56.6.18	22의 친척
27	14	♀	어업	月の浦	56.6/	11의 옆집
28	9	♂	어업	月の浦	56.6/	25의 아들
29	5	♀	어업	湯堂	56.6.8/	34, 9, 15의 친척, 33의 옆집
30	8	♂	일용직	丸島	56.6.16/	31의 이웃
31	44	♂	공무원	丸島	56.6.18/	30의 이웃
32	14	♂	어업	月の浦	56.6.24/	
33	17	♀	어업	湯堂	56.6.30/	29의 옆집
34	29	♀	어업	湯堂	56.7.13/56.9.3	9의 누나

26) 有馬澄雄 編集(1979) 『水俣病-20年の研究と今日の課題』, 青林舎, p.259 재인용, 1956년 8월 26일, 호소카와 하지메 원장이 후생성에 제출한 보고서에 첨부된 <부표2>.

32	14	♂	어업	月の浦	56.6.24/	
33	17	♀	어업	湯堂	56.6.30/	29의 옆집
34	29	♀	어업	湯堂	56.7.13/56.9.3	9의 누나

예컨대 위의 표 9번과 34번은 남매관계로, 이들은 실제 『고해정토』 『第1章 樫の海』의 1과 3에 등장하는 야마나카 규헤이(山中九平)와 그의 누나 야마나카 사쓰키(山中さつき)이다. 이시무레는 1963년 가을 문턱에 들어선 ‘바다에서도 집집에서도 그 어떤 소음도 들리지 않는’ 유도부락의 한 초라한 집 앞뜰에서, 보이지 않는 눈과 시도 때도 없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불안한 몸짓으로 손때 묻어 윤기가 나는 돌맹이로 야구연습에 열중하고 있던 야마나카 규헤이와의 첫 만남에서부터 『고해정토』의 실마리를 풀어놓기 시작한다. 야마나카 규헤이의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야마나카 규헤이, 16세(1949년 7월생). 미나마타시 유도, 아버지는 집안 대대로 어부였는데 1960년에 가벼운 감기가 원인이 되어 사망. 누나 사쓰키(1927년생) 1956년 7월에 미나마타병 발병, 같은 해 9월 2일 사망.

소년은 누나 사쓰키보다 1년 빠른 1955년 5월에 발병, 누나와 함께 미나마타시 시라하마 전염병원에 일시 수용되기도 했지만, 그 뒤 지금까지 재택환자로 분류되고 있다. 환자번호 16호. 현재는 노년에 접어든 어머니 지요(57세)와 단둘이 살고 있다.²⁷⁾

병원에서 누이의 죽음을 경험한 소년은 시와 나라에서 실시하는 일체의 검사와 치료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발병한 지 2개월도 못 되어 허망하게 죽어버린, 전후(戰後) 부활한 마을 청년단의 스타이자 여장부였던 큰딸 사쓰키를 한숨으로 추억하고, 이시무레는 그의 임상적 기록을 『熊本医学会雑誌』(1957년 1월 제31권 별책)에서 인용하고 있다.

27) 山中九平、十六歳(昭和二十四年七月生)。水俣市湯堂、父は代々の漁師であったが、三十五年にふとした風邪がもとで死亡。姉さつき(昭和二年生)三十一年七月、水俣病発病、同年九月二日、死亡。彼は姉さつきより一年早く三十年五月に発病、姉と共に水俣市白浜伝染病院に一時収容されたこともあったが、以後今日まで在宅患者として扱われている。患者番号十六である。老いかけた母親千代(57歳)と二人で住んでいる<pp.25~26>.

사례 제1호 야마나카, 28세 여, 직업 어업

발병 연월일: 1956년 7월 13일

주된 증상: 손가락의 마비, 청력장애, 언어장애, 보행장애, 의식장애, 광분상태
기존 병력: 태생이 건강하며 이렇다 할 병력은 없다

가족의 병력: 기술할만한 유전관계가 보이지 않지만, 형제 6명 중 8살인 남동생이 1955년 5월 이래 같은 증상의 중추신경성 질환을 앓고 있다.(중략)

9월 1일이 되자 운동이 진정되고 근육근 긴장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사지를 만져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중략) 오후 10시 호흡수 56, 맥박 수 120, 혈압 70/60 mmHg가 되어 다음날 오전 3시 35분 사망했다.²⁸⁾

그런가 하면 일람표의 29번은 『第5章 地の魚』 3의 주인공인 스기하라 유리이고, 11번은 『第3章 ゆき女きき書』 2에 등장하는 요네모리 히사오로 표 작성 당시 생존해있던 소년은 일곱 살 되던 1959년 7월 24일, 결국 사망하여 태아성 미나마타병의 검증을 위해 해부되고 만다.

요네모리 히사오, 1952년 10월 7일 생, 환자번호 18, 발병 1955년 7월 19일, 사망연월일 1959년 7월 24일, 환자가족 세대주 요네모리 모리조, 가업 목공, 주소 구 마모토 현 미나마타 시 데쓰키, 미나마타병 인정 1956년 12월 1일.

미나마타 시청 위생과 미나마타병 환자 사망자 명부에 기재된 일곱 살 소년의 생애의 이력은 덧없이 단순하고 명료해서, 그것은 수조 속의 산호처럼 생긴 소년의 소녀와 너무 잘 어울렸다.²⁹⁾

이렇듯 이시무레는 사실적 자료들을 토대로, 간략하게 도표화된 자료 속에

28) 病例第一例・山中、二十八歳女、職業漁業。発病年月日・昭和三十一年七月十三日。主訴・手指のしびれ感、聴力障碍、言語障碍、歩行障碍、意識障碍、狂躁状態。既往歴・生来頑健にして著患をしない。家族歴・特記すべき遺伝関係を認めないが、同胞六名中八歳の末弟が三十年五月以来同様の中枢神経性疾患を罹患している。(中略) 九月一日になると運動が鎮まり筋緊張はかえって減弱し四肢に触れても反応を示さなくなった。(中略) 午後十時に呼吸数56、脈拍数120、血圧70/60mmHgとなり翌日午前三時三十五分死亡した<pp.51~52>.

29) 米盛久雄、昭和二十七年十月七日生、患者番号十八、発病昭和三十年七月十九日、死亡年月日、昭和三十四年七月二十四日、患家世帯主米盛盛蔵、家業大工、住所熊本県水俣市出月、水俣病認定昭和三十一年十二月一日。水俣市役所衛生課水俣病患者死亡者名簿に記載された七歳の少年の生涯の履歴は、はかなく単純ですっきりしていて、それは水槽の中のセピア色の植物のような彼の小脳にふさわしかった<p.180>.

내재되어있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사는 물론 가족사까지를 소설화하고, 그 소설 속에 병들어 죽어가는 그들의 아픈 영혼의 소리를 대신하여 기록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병상기록 등을 인용하거나, 병든 물고기마냥 뒤틀리고 팔딱팔딱 튀겨오르는 몸뚱이로 달거리를 남편의 손길에 내 맡기고 사는 사카카미 유키³⁰⁾나 식물인간이 되어 열여섯의 어엿한 아가씨임에도 똥 기저귀를 차고 누워서도 얼굴 한 번 제대로 찡그리지 못하는 유리 등의 이야기를 그들의 독백이나 낚두리 형식으로 묘사함으로써 미나마타병의 무서운 진실을 슬프도록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이시무레는 어떻게 소설 속에 기록하고 있는가?

1956년 5월 28일에 미나마타 시 의사회와 보건소를 비롯해 잇소 부속병원, 미나마타 시립병원, 시청 등 5개 단체가 모여 미나마타 괴질 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고, 같은 해 8월 24일에는 구마모토대학 의학부에 미나마타병 의학연구반을 설치하여 그 원인규명에 착수했다. 그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1953년부터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56년이 절정기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환자 다발지구가 어촌이며 대부분의 환자가 어업에 종사하면서 미나마타만에서 잡힌 어패류를 다량 섭취했다는 사실 등을 알아냈다. 뿐만 아니라 역학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괴질이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³¹⁾

원인물질이야 무엇이든 일단 괴질의 공통원인은 오염된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어패류라는 생각에는 여러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발병이 현저한 어촌지역에서는 그 오염물질이 잇소 미나마타공장의 폐수임을 ‘잇소’와 그 산하 시민(市民)의 눈이 무서워 소리 내어 말은 못해도 확신하고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1959년 2월 9일 후생성은 마침내 미나마타만 내의 수은분포를 조사하기에 이른다. 그 조사 결과 미나마타 지역에서 미나마타병이 발생한 당시의 어패류와 진흙에서 다량의 수은이 검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30) 石牟礼道子(1969), 앞의 책, 第3章「ゆき女きき書」의 주인공으로 이 글의 내용은 p.150 참조.

31) 有馬澄雄 編集(1979), 앞의 책 중 原田正純「水俣病医学研究の歩みと今日の課題」참조. 이때의 연구결과가 『熊本医学会雑誌(1957年1月)』에 실렸는데, 이 또한 『고해정토』에 수록되어 있음.

도 짓소의 공장배수구 부근을 정점으로 하여 만(灣) 안쪽으로 갈수록 수은의 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공장폐수가 원인임이 분명해졌다³²⁾. 후생성 식품위생 조사회는 1959년 11월 12일 후생성 장관에게 ‘미나마타병은 미나마타만 및 그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어패류를 다량으로 섭취하여 생기는, 주로 중추신경계통의 장애를 일으키는 중독성 질환이고, 그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유기수은화합물이다’라고 보고한다. 하지만 후생성은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다음날로 미나마타의 질환을 조사하는 부회를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렇게 하여 짓소의 공장폐수에 의한 환경오염을 매개로 한 유기수은중독인 미나마타병의 실체는, 세상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오리무중인 채로 남게 된다.

대신 짓소와 정부의 대응에 반감을 가진 구마모토대학 의학부 연구반이 더욱 필사적으로 원인규명에 매달렸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뜻이 있는 지식인 내지 예술가들이 진실을 규명하고자 각자의 전문분야를 통해 미나마타병을 세상에 고발하고자 노력했다.

어쨌든 아무리 무지몽매한 어민이라도 알고 있는 사실, 처차식과 부모형제를 죽음으로 내몬 원흉이 짓소, 정확히 짓소가 흘려보낸 폐수 속의 메틸수은이라는 진실을 짓소와 정부만이 외면하고 있었다. 그러다 결국 짓소는 어떻게든 사태를 무마시키고자 어민들의 절박함과 무지를 악용하여 1959년 12월 어처구니없는 ‘위로금 계약’에 조인하게 하였다.

12월 하순, 시라누이해 연안 36개 어협에 대해 어업보상 일시금 3천5백만 엔, 재건을 위한 융자금 6천5백만 엔을 내주기로 결정. 단 어업보상금 중에서 1천만 엔은 11월 2일의 ‘난입’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보상금으로 반환하도록 했다.

미나마타병 환자모임 19세대에는 사망자에 대해 조위금 32만 엔, 환자 성인에게는 연간 10만 엔, 미성년자에게는 연간 3만 엔을 발생시점으로 소급하여 지불하고, ‘과거의 미나마타 공장의 배수가 미나마타병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일절 추가보상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교환했다.

어른 목숨 10만 엔

32) 原田正純(1972) 저, 김양호 역(2006), 앞의 책, p.75 참조.

아이 목숨 3만 엔

죽은 자 목숨 30만

나는 그 후로 염분을 대신해 이렇게 울조리게 되었다.³³⁾

짚소와 정부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식의 알뜰한 수단을 동원하는 동안 일본열도의 환경오염은 나날이 진행되어 제2의 미나마타병이 발생(1965년, 니가타 미나마타병)하게 되었고, 수많은 미나마타병 환자들이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굶주림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었다.

1953년을 미나마타병 공식발생으로 보는 이시무레의 주장에 따르면 미나마타병 역사 15년 만인 1968년 1월 12일 시민들이 미나마타병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자고 뜻을 모으며 ‘미나마타병 대책시민회의’를 발족하게 되는데, 이시무레는 ‘나의 유키, 나의 유리, 나의 모쿠타로, 나의 할아버지를 곁에 두고, 나는 한 사람의 시녀가 되어 시민회의의 발족에 종사’³⁴⁾할 결심으로 시민회의의 일원이 된다. 그리고 마침내 1968년 9월 26일, 그토록 무겁게 침묵해오던 정부는 마침내 미나마타병이 공해병임을 인정한다고 발표한다.

9월 26일 오후, 후생성·과학기술청에서 정부견해 발표

미나마타병을 요약한 후생성은 ‘원인은 메틸수은화합물로, 신일본질소 미나마타공장의 아세트알데히드 초산설비 안에서 생성된 메틸수은화합물이 배수에 섞여나가 미나마타만의 어패류를 오염시켰다’고, 처음으로 기업의 책임을 명시했다.(중략)

9월 27일.

질소공장 에토 사장이 도쿄에서 내려와 환자가정에 사과를 하러 다닌다고 했다. 그럼 그렇지, 역시 그렇지 라고 나는 생각했다. 틀림없이 이날을 맞이하여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아야 하리라.(중략) 사건발생 이래 15년, 그 보다 깊은 잠재기간을 포함시키면 아시오광독사건(足尾鉍毒事件)³⁵⁾으로부터 70년, 이 잠재기간도 역시

33) 十二月下旬、不知火海沿岸三十六漁協にたいし、漁協補償一時金三千五百万円、患者成人年間十万円、未成年者三万円を発病時にさかのぼって支払い、「過去の水俣工場の排水が水俣病に関係があったことがわかってもしっさいの追加補償要求はしない」という契約をとりかわした。おとなのいのち十万円/こどものいのち三万円/死者のいのちは三十万とわたくしはそれから念仏にかえてとなえつづける<pp.136~137>.

34) 自分のゆき女、自分のゆり、自分の壱太郎、自分のじいさまをかたわらにおき、ひとりの<黒子>になって、市民会議の発足にわたくしはたずさわる<p.318>.

충분하다. 나는 이 세월을 물리도록 맛보았다. 창자가 썩어문드러지고, 그것이 구 역질이 되어 나올 때까지. 질소공장 사장은 회사 자동차로 돌 것이 분명하다. 이날을 위해 이것저것 가난한 가계를 굶어모아 돈을 마련했다. 나는 택시를 빌려 타고 그 차를 뒤따르기로 했다.³⁵⁾

그렇게 이시무레는 탁상의 자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서재 하나 갖추지 못한 가난한 일개 주부의 몸으로 동분서주하며³⁷⁾ 피해어민들의 고통을 대신해 토로하는 대변가가 되기도 하고, 그들과 더불어 싸우는 운동가가 되어 시간과 공간을 뒤따르고 공유하면서 미나마타병의 진실을 기록함으로써 고향과 피해어민들의 고통과 한(恨)을 서사하고 있었다.

4.3 근대자본의 폐해와 미나마타병 이전의 고향

이시무레는 『고해정토』에, 비록 미나마타병에 몸과 영혼을 잠식당하고 말았지만 긴 세월 자연의 한 일부로 살아온 그들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과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고향(바다)에서의 삶을 그리고 있다. 이시무레는 짓소 미나마

35) 1890년 이후 십수 년에 걸쳐 발생한 일본근대사상 최대의 공해사건으로, 도치기 현의 아시오광산에서 흘러내린 유독중금속을 포함한 산성폐수 때문에 농수산물의 급감과 대홍수 피해 등으로 인명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었다. 1891년부터 田中正造가 정부의 광산감독행정의 태만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1896년 대홍수로 피해가 확대되자 田中의 지도하에 ‘대정부 광업정지운동’을 펼치기도 하고, 1901년 12월에는 田中가 직접 행차 중이던 천황에게 직소를 올리기도 하여 광독문제는 정치적 문제화되었다. 덕분에 광독처분을 실시하기 위해 광독조사단이 설치되기도 하였지만, 1907년 결국 야나카(谷中) 마을은 폐촌이 되어 수몰되었다.

36) 九月二十六日午後、厚生省・科学技術庁で政府見解発表。水俣病をまとめた厚生省は「原因はメチル水銀化合物で、新日本窒素水俣工場のアセトアルデヒド酢酸設備内で生成されたメチル水銀化合物が排水に含まれ、水俣湾内の魚介類を汚染した」とし、はじめて企業責任を打ち出した。(中略)九月二十七日、チッソエ江頭社長が東京からやってきて、患者家庭をお詫びにまわるという。なるほどなるほどとわたくしはおもう。しかとこの日をむかえ、みとどけねばならない。(中略)事件発生以来十五年、そのより深い潜在期間を入れると足尾鉍毒事件より七十年、この潜在期間もまた充分出ある。たっぷりこの年月をわたくしは味わった。はらわたがくさり、それが嘔吐になってくるまでに。チッソ社長は社用の自動車でもわるにちがいない。この日のためにやりくり無能の家計を切り盛りし、金は用意した。わたくしは、タクシーを借り切っについてまわることにした<p.342>.

37) 당시 이시무레는 가인(歌人)이자 시인으로 활동하던 가난한 일개 주부였는데, 1965년 그녀의 집을 방문했던 와타나베 교지가 작품해설에서 ‘다다미 한 장을 반으로 자른 정도’ 크기의 웅색한 이시무레의 ‘서재’에 대해 서술한 것을 인용함.

타공장으로 상징되는 근대자본이 미나마타 시에 들어오기 이전의 고향을 『고해정토』 곳곳에 묘사하고 있다. 예컨대 『第4章 天の魚』에서 에즈노 영감이 짓소가 들어오기 이전의 고향과 시라누이해에서 고기잡이 하던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이나, 이시무레와 피해어민들의 과거와 현실에 대한 증언과도 같은 대사 등에서 ‘미나마타병 이전의 고향과 민초의 삶’의 편린들이 엿보인다.

밤 되면 가장 생각나는 것은 역시, 바다야. 바다가 제일 좋았어.

봄부터 여름이 되면 바다 속에도 온갖 꽃들이 만발하지. 우리 바다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바다 속에도 명소라는 게 있어. ‘찾잔코’에 ‘맨살여울’에 ‘검은 해협’ ‘사자섬’까지.

빙 한 바퀴 돌면 익숙해진 우리 코에도, 여름이 시작될 무렵의 바다 향기가 풀 풀 풍기거든. 회사(짓소) 냄새하고는 차원이 다르지.³⁸⁾

이상의 인용문은 『第3章 ゆき女きき書』의 주인공인 유키의 대사인데, 이 시점의 유키는 중증의 미나마타병으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더듬거리며 온몸이 심한 경련으로 들쭉거렸다. 그러한 유키가 위와 같은 말을 직접 했을 리 만무하고, 이시무레가 유키의 ‘생각을 글로 표현’한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고향 바다에 대한 유키의 생각이면서 동시에 이시무레의 생각이기도 하다. 유독 유키뿐만이 아니라 『고해정토』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대부분이 미나마타병 이전의 고향에 대해 향수를 품고 있고, 그러한 그들의 향수를 이시무레는 슬프도록 아름다운 추억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묘사에 대해 와타나베 교지는 『고해정토』의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ゆき女きき書』나 『天の魚』에서 묘사되는 자연이나 바다 위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이 세상의 고뇌와 분열의 깊이는 그들에게 환시자의 눈을 부여한다. 고향(苦海)가 정토(淨土)가 되는 역설은 그래서 성립한

38) 晩にいちばん想うことは、やっぱり海の上のことじゃった。海の上あいちばんよかった。春から夏になれば海の中にもいろいろ花の咲く。うちたちの海はどんなにきれいかりよったな。海の中にも名所のあつとばい。「茶碗が鼻」に「はだか瀬」に「くろの瀬戸」「ししの島」。ぐるっとまわればうちたちのなれた鼻でも、夏に入りかけの海は磯の香りのむんむんする。会社の臭いとちがうばい<p.167>.

다. 필시 그녀는 이 두 이야기에서, 그들 눈에 비치는 자연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으며, 그들이 영위하는 바다 위의 생활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 외에는 일절 그리지 않으려 하고 있다.³⁹⁾

이시무레는 이처럼 ‘짓소’로 상징되는 근대자본이 가난하고 힘없는 피해어민들의 삶과 영혼을 어떻게 짓밟고 병들게 했는지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어민들의 과거에 대한 기억과 꿈꾸는 미래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고향을 묘사함으로써, 미나마타병으로 상징되는 근대자본의 폐해를 역설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간혹 이시무레 미치코를 근대라는 척도보다 과거와 미래에 대해 더 먼 과거와 더 먼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졌다고 평하면서, 보통 근대적 문학이 자연을 인간과 대립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과 달리 이시무레의 작품은 인간과 자연이 대립이 아닌 상호소통을 통해 농밀한 코스모스를 형성하는 것으로 묘사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⁴⁰⁾ 그러한 의미에서 그의 문학을 근대문학과는 근본적 맥락을 달리하는 ‘반근대적 문학’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그의 작품들이 근대화 이전의 과거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 또 그러한 작업에서 현실을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먼 미래를 예견하고 밝은 미래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에서 근대 이전의 모습을 작품에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시무레는 ‘반근대적’이라기보다는 ‘전근대 지향’적 작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1986년 12월에 이시무레는 교토에서 이반 일리히⁴¹⁾와 대담을 나눈 적이 있는데, 『樅の海の記』⁴²⁾라는 작품을 어떻게 쓰게 되었는

39) 『ゆき女聞き書』や『天の魚』で描かれる自然や海上生活があまりにも美しいのは、そのためである。この世の苦悩と分裂の深さは、彼らに幻視者の眼をあたえる。苦海が浄土となる逆説はそこに成立する。おそらく彼女はこのふたつの章において、彼らの眼に映る自然がどのように美しくありえ、彼らがいとなむ海上生活がどのような至福でありうるかということ以外は、一切描くまいとしているのだ<p.383>.

40) 岩岡中正(2006) 편저, 『石牟礼道子の世界』(弦書房)에 게재된 후쿠모토 미쓰지(福元満治, 1948~)의 『石牟礼道子と水俣病運動』, p.125 참조.

41) 이반 일리히(Ivan Illich, 1926~2002), 오스트리아 빈 출생. 사상가이자 역사학자. 1951년 미국으로 건너가 사제로 활동하다 교황청과의 마찰로 1969년 사제직을 그만 둠. 그 후 『학교 없는 사회』 『질제의 사회』 등 근대문명에 대한 비판적 글을 쓰는 등 활발한 저술과 강의활동을 하다 2002년 12월 76세에 서거.

42) 1973년에 『文芸展望』에 연재하기 시작하였고, 1976년 아사히신문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한

가 라는 일리히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초의 작품인 『고해정토』가 그야말로 미나마타병에 대해 쓴 작품입니다만, 미나마타병을 경험하기 전의 미나마타라는 풍토를 대표로 하여 이 나라의,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바닷가 세계와 그 주변 사람들을 키워주고 살게 한 풍토에 대해 꼭 써보고 싶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근대문명의 끝을 예견이라도 하듯 미나마타병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유럽을 동경하며 100년 정도 들어서 근대화 매진해왔지만, 그 일본의 근대를 상징하는 대도시, 중앙이라는 의미에서 도쿄라고 해야 할까요, 그곳에 일본 대부분의 지적수준이 모여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그런 도시시민적 의원님들을 낳고 키워서 도시로 보내준 것은 사실 시골, 마귀 말해 변경(邊境)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시골에 남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역할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해온 것은 아닐는지요? 짓소 간부라는 사람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의 화학산업계의 가장 진보한 수준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수준의 인재를 100년 정도 전부터 낳고 키워온 고향, 고향이라기보다 모향(母郷)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그런 어머니 같은 고향의 전형으로써 미나마타를 그리고 싶었습니다.⁴³⁾

이시무레가 말한 것처럼 『樫の海の記』는 1969년에 『고해정토』가 출판된 이후 4년의 시간이 흐른 뒤인 1973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작품이다.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 미나마타를, 세상에 다시없을 공포와 부정의 대명사인 ‘미나마타병’

작품으로, 작가의 어린 시절(1930년대 초 무렵)을 고향의 모습과 함께 그린 자전적 성장소설.
43) 最初の作品が『苦海浄土』といまして、これはそのものずばり水俣病を書いた作品ですが、ぜひとも水俣病を経験する前の水俣という風土に代表させて、この国の、私に考えられる範囲での海辺の世界と、そのあたりの人々をはぐくみ育ててきた風土について書きたく思っていました。先ほどもお話いたしました、近代文明の行く末の予兆として水俣病が起きました。日本はヨーロッパにあこがれて百年ぐらいかかって一路近代化に邁進してきましたが、その日本近代を象徴する大都市、中央という意味で東京と云った方がいいんですが、そこに日本の知的水準のほとんどは集まっていると思われます。けれどもそういういわば都市市民的選良達を生み、育み、送り込んできたのは、実は田舎というか、辺境の心だった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田舎に残った者たちはそれが自分らの役目、つとめだと思ってきた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チツ幹部というのも、ある意味で日本の化学産業界の、いちばん進んだ水準を表していたと思われます。そういうレベルの人材を百年ぐらい前から生み続けてきた故郷、というより、‘母郷’という言葉を使いたいんですけど、母なるふるさとの典型として水俣を書きたかったのです(河野信子・田辺光子 共著(1992), 『夢劫の人-石牟礼道子の世界』, 藤原書店, 프롤로그 ‘希望を語る’, p. ii).

으로 인해 병들고 죽어가는 상처투성이의 고향으로 그려야 했을 작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그는 대담 속에서 근대화를 추진하고 근대화의 폐해를 목인한 ‘도시시민적’ 인재를 낳고 키운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니와 같은 고향=모향’이라고도 말한다. 위 인용문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시무레는 『樫の海の記』라는 작품을 통해 ‘근대화의 슬픈 끝을 예견하는 미나마타병’ 이전의 모향(母郷)이 『고해정토』의 주인공들 가슴에도 고스란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피해어민들이 미나마타병을 숙명처럼 고스란히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 역시 ‘도시시민적’ 인재를 낳고 키운 고향의 책임을 감안한 체념이었음을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추측해본다. 이시무레는 또한 미나마타병 이전의 고향을 기록함으로써 자신을 비롯한 민초들이 꿈꾸는 이상향을 서사하고 있다고 본다.

5. 나오며- 『苦海浄土』

1954년 무렵, 일본의 구마모토 현 미나마타 시를 발상지로 한 시라누이해(不知火海) 연안 일대에 창궐한 미나마타병에 대한 기록은 의학계 보고서나 학술적 연구서 등을 중심으로 사진, 시, 노래, 신작노(新作能), 다큐멘터리 영화, 소설, 그림책 등 여러 장르에 걸쳐 기록되고 있다. 그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미나마타병 관련한 대표적 작품으로 손꼽히는 작품이 『고해정토』일 것이다. 이시무레 미치코(石牟礼道子)는 소설 『고해정토』뿐만 아니라 그림책 『みなまた 海の声』, 新作能 『不知火』 등을 썼고, 그 외에도 시와 에세이 그리고 대담집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미나마타병과 그 피해환자들의 고통과 한을 담아내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의 대표작품 중 하나인 『고해정토』의 기록주의에 초점을 맞춰 고찰함으로써, 짓소라는 회사로 상징되는 근대자본과 고향과의 관계를 비롯해 실재자료들 속에 내재된 미나마타병의 진실을 끌어내어 소설로 기록하고 있으며, 피해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과 한을 그들 영혼의 소리를 대신하여 작품 속에서 서사한 ‘기록주의 작품’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시무

레리는 작가와 『고해정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리라 보고 작가와 작품에 대한 선행연구와 작품소개를 비교적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고의 주요목적에 해당하는 「4. 『고해정토』는 무엇을 어떻게 기록했는가?」에서는 크게 ‘짚소(チッソ)회사의 역사’ ‘미나마타병의 진실’ ‘근대자본의 폐해와 미나마타병 이전의 고향’이라는 세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하였다. 그를 통해 『고해정토』가 이시무레만의 독특한 기록주의 작업이 낳은, 미나마타병의 진실을 기록함으로써 근대자본과 고향으로 상징되는 민초들의 삶과 애환의 관계를 서사한 소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해정토』를 비롯한 이시무레 문학이 추구하는 이상향이 미나마타병 이전의 고향, 근본적으로는 근대화 물결 이전의 고향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에 대한 단서를 찾아볼 수 있었다고 보고 이시무레를 ‘전근대 지향적 작가’라는 확신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시무레와 그의 문학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소외되고 있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큰 의미와 과제를 제시해준다. 그런 만큼 그의 작품과 문학이념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욱 활발히 이뤄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텍스트

石牟礼道子(1969) 『苦海浄土-わが水俣病』, 講談社.
(石牟礼道子(1969) 저, 김경인 역(2007) 『슬픈 미나마타』, 달팽이)

*단행본

한용환(2001) 『소설학 사전』, 문예출판사, pp.237~240.
有馬澄雄 編集(1979) 『水俣病-20年の研究と今日の課題』, 青林舎, p.259.
石牟礼道子(1969) 『苦海浄土-わが水俣病』, 해설(渡辺京二) 『石牟礼道子の世界』, 講談社, p.371.
石牟礼道子(2004) 『石牟礼道子全集 第一巻』, 『水俣病』, 藤原書店, pp.146~159.
石牟礼道子(2004) 『石牟礼道子全集 第一巻』, 『菊とナガサキ』, 藤原書店, pp.336~350.
宇井純(1968) 『公害の政治学-水俣病を追って』, 三省堂, pp.13~14.
原田正純(1972) 저, 김양호 역(2006) 『끝나지 않은 아픔 미나마타병』, 한울, pp.32~38,

pp.75~78.

渡辺京二(2004) 『石牟礼道子の世界-『苦海浄土』を読む』, 『不知火-石牟礼道子のコスモロジー』, 藤原書店, pp.148~160.

*논문

김종철(2010) 『대지(大地)로 회귀하는 문학』, 『녹색평론』(2010, 114호), 녹색평론사, pp.2~29.

岩岡中正(2008) 『石牟礼道子における文学と政治』, 『熊本法学』 113, pp.253~278.

宮本久雄(2008) 『Possibility of "Han(恨)" in Ishimure's Literature』, 서강대 신학대 학원.

❖ 투고일 : 2012.06.30

❖ 심사일 : 2012.07.24

❖ 심사완료일 : 2012.08.06